

研究資料

臺灣의 糧政變遷과 構造調整政策

高 在 模*

- I. 머리말
- II. 日帝統治時期(1895년-1945년)
- III. 土地改革時期(1945년-1950년)
- IV. 食糧政策確立과 增產時期(1950년-1968년)
- V. 暫定的 生産衰退時期(1969년-1973년)
- VI. 收買政策實施와 農業成長時期(1974년-1982년)
- VII. 生産過剩 및 構造調整時期(1983년-1991년)
- VIII. 맺음말

I. 머리말

중국에서古今을 통해 糧政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찌기 중국에서는 「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이라 하여 국가는 인민을 근본으로 삼고 인민에게 있어서 糧食은 하늘과 같다고 하였다. 즉 인민의 통치에 있어서 양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고대 뿐만 아니라 중국의 근세 및 현대사에 있어서도 이는 예외가 아니다.

중국의 근·현대사에 가장 특기할만한 분

수령은 역시 淸朝의 붕괴를 가져오면서 공화국 수립이 시작된 신해혁명(1911년)이다. 신해혁명 이래 공화국정부가 중국대륙을 지배하면서 阿片전쟁, 淸日전쟁 등에서 상한 중국인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려 부단히 노력 하였으나 혼란만 극심해질 따름이었다. 이러한 혼란은 1949년 중화민국정부(國民黨 주도)가 중화인민공화국정부(共產黨 주도)에 패퇴하여 대만으로 遷移할 당시까지 계속되었다. 약 40여년간의 혼란상태에 대한 연구는 다각도에서 연구될 수 있으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지적될 수 있는바 이는 재정금융정책의 실패와 양정의 문란이다. 전자는 조세정책의 실패와 통화팽창으로 인한 전체 경제의 亂脈像을 이룸이요, 후자는 토지정책을 비롯한 농정의 무분별로 장기적 식량부족을 겪으면서 민심이반을 일으킨 것이다. 이와같은 경제적 失政은 8년간에 걸친 항일전쟁의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광복 후의 國共內戰에서 국민당정부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했고, 결국 1949년 중화민국 정부의 臺灣遷移로 귀결지워졌다. 중화민국 정

* 招請研究員

부는 臺灣遷移 이후 중국대륙에서의 이러한 실패를 교훈삼아 재정금융정책과 양정을 두 개의 축으로 건설한 경제운용을 하였던바 오늘과 같은 세계적 경제모범국가를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본문에서는 재정금융정책은 차치하고 그간에 있었던 양정을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오늘에 우리가 안고있는 양정문제 및 농업정책과 비교해 봄으로써 他山之石의 교훈을 얻고자 함에 목적이 있고, 아울러 최근의 농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책당국자들에게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우선 본문에서는 1895년 이래 대만양정 변천을 배경, 입법 및 정책적 측면에서 여섯기간으로 구분하였고, 각기간의 주요 관련사항들을 요약 정리하였다.

I. 日帝統治時期(1895년-1945년)

목표 : 日帝의 食糧供給源確保
 배경 : 1895년 清朝의 日本에 대한 臺灣割讓
 1937년 中·日戰爭 勃發
 입법 : 1898년 「臺灣地籍規則及土地調查規則」공포
 1939년 「臺灣米穀移出管理令」공포
 정책 : 1895년이래 「工業日本 農業臺灣」정책
 1939년이래 「全量收買 全量配給」制 실시
 성과 : 水利시설개선, 품종개량 등으로 대폭적 생산성증가
 日帝의 食糧공급원확보에 큰 기여

II. 土地改革時期(1945년-1950년)

목표 : 토지개혁을 통한 농업생산력 회복 및 民生安定
 배경 : 戰後 극심한 식량관과 농업생산력 저하
 인구의 대량유입과 통화팽창
 體制變革과 制度改革의 필요성
 입법 : 1946년 「土地法」제정

1947년 「糧區」제도도입
 1948년 「平均地籍條例」제정
 1949년 「耕地375減租條例」제정

정책 : 「全量收買 全量配給」制폐지, 自由賣買制 실시
 성과 : 법령 및 제도정비
 戰前수준으로의 생산력회복
 高率小作慣行終熄

III. 食糧政策確立과 增產時期(1950년-1968년)

목표 : 농업자원개발과 식량자급도 제고
 배경 : 합리적 자원분배의 필요성
 경제개발계획과 外貨부족
 입법 : 1953년 「耕者有其田條例」제정
 1954년 「田賦徵收實物條例」제정
 1953년-1968년 「第1次-第4次 經濟建設4年計劃」추진
 정책 : 「以農業培養工業 以工業發展農業」정책
 성과 : 농업부문의 급속한 성장
 농산물무역확대와 外貨획득에 기여

IV. 暫定的 生產衰退時期(1969년-1973년)

목표 : 계획적 농정수립 및 농업부문 재도약
 배경 : 경기침체
 농업생산력 감퇴
 입법 : 1969년 「農業政策綱領」발표
 1972년 「加強農村建設9項措置」발표
 1973년 「農業發展條例」제정
 성과 : 지속적 경기침체 및 농업발전 둔화
 급속한 정부보유미수준의 감소

V. 收買政策實施와 農業成長時期(1974년-1982년)

목표 : 안정적인 식량공급원확보
 배경 : 에너지위기와 세계곡물시장 수급불균형
 비농업부문 토지수요급증

입법 : 1974년 「糧食平準基金設置辦法」제정
 1975년 「區域計劃法」제정
 1976년 「非都市土地使用管制規則」제정
 1980년 「農地重劃條例」제정
 정책 : 「稻米保價收購」정책
 성과 : 과잉생산에 이를 정도의 식량공급원 확보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생산성향상

VI. 生産過剩 및 構造調整時期(1983년-1991년)

목표 : 재정부담경감, 과잉농산물처리 및 농업구조조정
 배경 : 미국과잉생산 및 수매로 인한 재정부담가중
 사료곡물 수입급증
 농산물시장의 국제화 개방화 추세
 입법 : 1983년 「擴大家庭農場經營規模協助農民購買
 耕地貸款辦法」실시
 1984년 「稻米生産及稻田轉作6年計劃」실시
 1984년 「中·美米食外銷協議」체결
 정책 : 「稻田轉作及生産結構調整」정책
 성과 : 미국생산감소 및 사료작물 생산증가 등 농
 업구조개선
 정부재정부담감소
 경영규모확대엔 실패

II. 日帝統治時期(1895년-1945년)

1895년 淸·日전쟁의 종식과 함께 청조는 대만을 일본에게 할양했다. 초기 일본의 대만에 대한 평가는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의 중요성 보다는 경제적 측면에 치중되었다. 특히 농정의 측면에서 대만의 중요성은 부각되었다. 농정의 측면에서 대만은 크게 두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1895년부터 1938년까지의 적극적인 생산장려시기와 1938년

이후 대만 광복이 이룩되던 1945년까지의 통제시기이다.

1. 生産獎勵時期(1895년-1938년)

생산장려시기 기간 중에 일본은 「工業日本 農業臺灣」의 정책하 대만지역의 기초토지조사사업실시, 수리시설개선, 품종개량,荒地개간, 생산기술개선 등에 주력하여 당시 일본국내에서 부족하던 미국의 보충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생산량 증가방면에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 일제시대 출간된 「臺灣米穀要覽」에 따르면 일본의 대만통치가 시작된 5년 후, 즉 1900년에 미국의 식부면적은 325천ha, 생산량은 307천^M/_T(粗穀), 단당수량은 943kg정도에 불과했다. 그 후 식부면적과 총생산량, 단위면적당 수확량 등은 매년 급속한 증가추세를 지속하여 1930년도말에 이르면 식부면적은 658천ha로 2.0배, 생산량은 1,402천^M/_T로 무려 4.6배,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2,088kg/ha으로 2.2배의 놀랄만한 기록증가를 보여 준다. 이 결과 미국생산은 대만 자체의 수요에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부분이 일본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流出되었다. 구체적인 기록을 보면 1904년 100천^M/_T의 유출을 초과하기 시작하면서 1925년 이후에는 전체 생산량의 1/3을 초과하는 300천^M/_T~380천^M/_T에 이르고 있다.

2. 統制時期(1939년-1945년)

1937년 7월 中·日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열도와 대만은 비상체제에 돌입하게 되고 이는 양정 수행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종래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던 정책은 전시 물

표1 日帝統治時期 米穀生産狀況

區 分	1900년	1910년	1920년	1930년	1940년	1945년
植付面積(천ha)	325	456	540	614	639	502
生産量(천 ^M /τ)	307	598	692	1,053	1,129	639
段收(kg / ha)	943	1,131	1,383	1,714	1,768	1,273

資料：「臺灣糧食統計要覽」各年度版，臺灣省政府糧食局

표2 日帝統治 末期의 農業部門投入

區 分	投入係數(1935-1937=100)			投 入 量	
	勞 動	流動資本	固定資本	化學肥料(천 ^M /τ)	農業勞動者(천명)
1935	99.9	94.0	109.6	423	1073
1936	101.7	103.7	103.1	493	1108
1937	98.5	102.3	87.3	508	1120
1938	98.8	102.3	77.9	518	1130
1939	104.1	97.7	79.1	480	1155
1940	105.6	83.5	86.5	419	1174
1941	103.8	77.0	84.1	388	1076
1942	103.4	67.1	96.2	309	1076
1943	102.4	62.0	72.0	290	1033
1944	98.2	40.1	52.3	154	838
1945	79.3	21.5	45.9	26	896

資料：謝森中，李登輝共著「臺灣農業發展的經濟分析」

자부족으로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고, 당연히 생산성 하락 등 수급조절에 지장을 초래했다. 전쟁수행 기간중 농업노동자와 자본 투입은 현저히 감소했고 그 결과 농업생산과 관련된 모든 지표들은 하향추세를 나타냈다. 식부면적은 戰前 최고수준인 1936년의 682천ha에는 못미쳤으나 대개 600천ha 내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단위면적당 수

확량의 현격한 감소(1938년의 2,242kg/ha에서 1945년의 1,475kg/ha)로 인하여 생산량 수준(1938년의 1,402천^M/τ에서 1945년의 639천^M/τ)도 현저히 낮아졌다. 이에 민간에서는 미곡 품귀현상이 일어나면서 가격 상승은 물론이려니와 유통량도 현저히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본의 요구량은 증대되어 1938년엔 696천^M/τ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등 대만국내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되어 부득불 전면적 통제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1939년 5월 「臺灣米穀移出管理令」을 반포하면서 통제가 시작되었다. 1941년 일제의 발동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니 전쟁 중 징병으로 인한 농업노동자의 감소가 두드러졌고, 특히 화학비료를 비롯한 농업생산자재의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통제기간중 생산여건은 계속 악화되어 갔고 1940년을 전후하여 일본으로의 유출은 연간 400천^M/_T~600천^M/_T을 유지하게 되니 1945년 대만광복이 있기까지 식량부족으로 인한 고통은 극에 달했다.

Ⅲ. 土地改革時期(1945년-1950년)

일제통치기간중 대만의 양정목표는 일본의 식량수요 충족을 위한 통제하에 있었다. 따라서 전면적 배급제도하에서 대만주민의 생활수준이나 농업생산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중화민국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법적, 행정적 조치들을 취했다. 그중 중요한 조치들은 향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농정의 지주가 되어온 「土地法」 「平均地權條例」 「耕地375減租條例」 등이다.

1. 光復初期 過渡期間(1945년-1946년)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2개월여 후인 1945년 10월 25일에 중화민국 정부는 정식으로 일본으로부터 대만을 접수하였다. 당시 생산성 낙후와 극심한 식

량난으로 戰前 일제에 의해 실시되었던 「全量收買 全量配給」제는 「臺灣省管理糧穀臨時辦法」을 통해 당분간 지속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의 모든 생활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을 갖고 있어 조만간 폐기되어야만 했다. 결국 1946년 전술한 「臨時辦法」이 폐기되면서 「全量收買 全量配給」제 역시 정지되고 농민들과 실수요자들의 자유로운 매매가 이루어졌다. 동시에 정부는 1930년 중화민국 정부가 제정·반포한 「土地法」을 토지와 농업전반에 걸친 내용수정을 거쳐 1946년 4월 수정·반포하였다.

2. 光復初期 生産力 恢復時期 (1946년-1950년)

일제통치 말기 일제에 의한 통화팽창(1945년 8월 15일부터 1945년 10월 25일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을 접수하기까지 약 2개월 동안에 화폐발행액은 14억 3천만원에서 29억여원으로 증가)과 생산환경의 파괴가 극심하였고, 雪上加霜으로 1940년대 중기부터는 대륙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되면서 식량수요증가와 물가불안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이들을 어떻게 진정시키고 회복시키느냐가 정책의 주안점이 되었다. 금융정책 방면에서 보면 1948년 화폐개혁을 단행함과 동시에 은행대부를 제한하고 지하금융을 정리하면서 통화팽창 억제와 물가안정에 전력을 경주했으나 당분간 악화된 상황이 지속되었다. 양정의 측면에서는 1948년 「平均地權條例」를 제정하여 토지소유의 均分化를 꾀하고, 또 1949년 「耕地375減租條例」를 제정하여 종래의 高率小作관행악폐를

제도적으로 진정시켰다. 이와 더불어 1946년부터 1950년까지 「제1차 糧食增産5年計劃」을 추진하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였던바 1950년에 이르러서는 미곡140만톤 생산목표를 달성하여 전전 최고수준에 달하는 성과를 견우었다. 뿐만 아니라 미곡수출에도 박차를 가하여 외화획득에 기여하게 되었고 공업발전에 필요한 자본수요의 상당부분을 충당하기에 이르렀다.

표3 光復初期 米價狀況

年 度	都賣物價指數	產地米價	都市小賣價格
	(1937=100)	元/kg	元/kg
1937	100	0.13	0.20
1950	888	0.83	1.28
1951	1,473	0.84	1.32
1952	1,814	1.40	2.08
1953	1,973	2.19	3.29

資料：「臺灣糧食統計要覽」各年度版, 臺灣省政府糧食局

IV. 食糧政策確立과 增産時期 (1950년-1968년)

중화민국 중앙정부가 정식으로 遷臺한 것은 1949년 12월 이었다. 1940년대말의 생산력 회복이 있었다하나 중앙정부의 遷移, 이와 함께 유입된 갑작스런 인구증가는 사회 각 부문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51년부터는 일반물가의 폭등과 함께 미가상승이 두드러졌다. 1951년 1kg에 1.32원 하던 미가는 1952년에 2.08원, 1953년에 3.29원 등으로 폭등하였다. 정부는 모든 비축미의 방출을 단행하여 물가상승억제에 다소의 효과를 보았으나 이역시 재고수준 격감으로 인한 민심의 동요를 야기했다. 그래서 정부는 생산력 증진에 주력하는 한편 정부 비축미 확보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군인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의 식량수요는 정부에서 책임지고 할당하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정부비축미의 충분한 확보는 정치 군사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종래에 있어 왔던 정부비축미 확보 방안(1936년의 「田賦改徵實物」, 「公地田租

표4 光復初期 生産狀況

區 分	1946	1950	1955	1960	1965	1970
植付面積(千ha)	564	770	751	766	773	776
生産量(千 ^M /τ)	894	1421	1615	1912	2348	2463
段數(kg / ha)	1585	1845	2151	2495	3038	3173

資料：「臺灣糧食統計要覽」各年度版, 臺灣省政府糧食局

扮收實物」, 「肥料換穀」 등)이외 1954년엔 「田賦徵收實物條例」를 제정하여 농지세의 현물수납체제를 강화하였다.

한편 농지제도의 측면에서는 1953년 「耕者有其田條例」를 제정하여 자경농에 의한 농지의 농민소유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고을 소작관행을 혁파한 「耕地375減租條例」에 이은 제도적 측면에서의 혁신에 대체적 완성을 보게 되었다. 아울러 1953년의 「糧政改革方案」에 의거 지속되어 온 건전한 양정관리제도의 운용으로 미곡생산의 증가, 농민수익제고, 식량공급원 확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농업부문에서의 각종 생산장려조치, 농지제도확립, 양정관리체

제의 효율적 운영은 1953년부터 1968년에 걸친 「第1次-第4次 經濟建設4年計劃」의 추진과 상호보완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농업부문을 포함한 대만경제가 후진성을 탈피하여 도약단계로 진입하는데 튼튼한 기반이 되었다.

V. 暫定的 生産衰退時期 (1969年-1973年)

1953년 이래 지속된 4차에 이르는 「經濟建設4年計劃」은 급속한 경제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농업부문 역시 괄목할 성장을 거듭하였으나 비농업부문과 비교하여 상대적 劣位를 면키어려웠다. 국민총생산중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1년의 28%를 고비로 해마다 급속히 감소하여 1969년엔 16%로 떨어지고 1973년엔 다시 12%수준으로 격감했다. 이와 상반되게 광공업부문은 같은기간중 29%에서 50%로 증가하였다. 1961년에 농업부문 및 광공업부문이 GNP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8%와 29%의 비슷한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8년사이에 발생한 놀랄만한 구조적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비농업부문의 급속한 성장은 농업부문 종사자들의 상대소득 저하를 가져왔고, 나아가 농촌노동력의 유출을 야기하며 농촌임금상승과 생산비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쇄적 과정은 농민들의 경작의지를 감퇴시켜 20년 이래 지속적 증가추세를 유지하던 식부면적과 총생산량이 反轉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73년에는 십수년간 이래 최악의 생산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와 아울러 정부의 비축미사정도 심각한 수

준에 이르렀다. 1969년 정부비축미는 총생산량의 28%수준이었으나 1973년에 14%로 하락하더니 1974년엔 9%까지 떨어졌다. 생산의 감소와 비축미의 감소는 미가의 폭등을 가져왔다. 1972년 도시지역의 백미100kg 가격은 786원이었으나, 1973년엔 895원으로 상승하고 1974년엔 다시 그 두 배인 1750원으로 폭등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한 농정의 전반적 검토와 정부비축미 확보를 위한 계획적 농정수립을 절감하였던바 각종 조치를 서둘러 마련했다. 예를들면 1972년 발표한 「加強農村建設9項措施」, 1973년의 「農業發展條例」, 1973년의 「糧商登記規則」제정 등이 그것이다.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농민들의 호응으로 1974년 부터는 생산력증대와 미가의 안정 성회복 등 다소의 성과가 나타났으나 1974년에 발생한 세계적 에너지위기와 세계곡물시장의 수급 및 가격불안정은 국내경제에도 큰 충격을 미쳐 대만농업 및 양정의 새로운 시련과 전기를 맞았다.

표5 國民總生産中 産業別比率

區 分	農業(A)	鐵 工 業		서비스業 (C)
		(B)	B/A	
1951	32.47 %	23.86 %	0.73	43.67 %
1956	27.61	27.70	1.00	44.69
1961	27.59	29.48	1.07	42.93
1966	22.62	34.08	1.51	43.30
1969	15.96	41.38	2.59	42.66
1971	13.14	43.49	3.31	43.37
1973	12.19	49.55	4.06	38.26
1976	11.48	49.03	4.27	39.49
1981	7.40	50.24	6.79	42.36
1985	5.98	49.71	8.31	44.31

資料：「中華民國臺灣地區國民所得」各年度版, 行政院主計處

표6 米穀生産 및 政府掌握量

區分	生産量(千M/ㄱ)	政府掌握量(千M/ㄱ)	掌握比率(%)
1961	1912	562	29
1962	2016	623	31
1963	2113	637	30
1964	2109	665	32
1965	2247	661	29
1966	2348	678	29
1967	2380	644	27
1968	2414	639	26
1969	2518	707	28
1970	2322	461	20
1971	2463	511	21
1972	2314	416	18
1973	2440	351	14
1974	2255	211	9

資料：黃登忠「四十年來之臺灣糧政」

VI. 收買政策實施와 農業成長時期 (1974년-1982년)

1974년 국제시장에서의 수급불균형 및 미가폭등은 국내정책수행에 크게 두 부분으로 반영되었다. 첫째는 농지의 무분별한 轉用에 대한 제한조치였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비농업부문의 토지수요는 증가일로에 있었고 지가의 상승을 수반하면서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자극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1975년의 「區域計画法」, 1976년의 「非都市地域土地使用管制規則」, 1980년의 「農地重劃條例」 등 일련의 제도적 조치를 발표하고 기존농지의 재구획을 통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방안 모색 뿐만아니라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방지하여 양호한 농업생산환경조성에 전력을 기울였다. 둘째는 수매정책이다. 종래 정부에서 양원확보를 위해 채택한 가장 주요한 수단은 「肥料換穀」제도(비료대금의 현물수납)와 「田賦徵收實物條例」(농지세의 현물수납)에 의한 현물수납이었으나 前者가 1973년 폐지되면서 정부보유미 수준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매정책의 실시로 농민의 수익증대 및 점점 커져가는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 해소를 꾀하는 동시에 양원확보를 도모하였다.

1974년 「糧食平準基金設置辦法」에 의거 行政院은 미곡수매를 위한 기금조성에 착수하여 우선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30억원을 조성하여 수매에 착수했다. 이렇게 시작된 수매정책은 수매방법상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無制限 收買時期와 制限收買時期이다. 수매정책 실시년도인 1974년부터 초기 3년간은 정부에서 무제한 수매를 실시했다. 전량 정부에서 수매했으며 수매가격은 생산비에 20%의 합리적 이윤을 가산한후 중앙정부에서 최종 결정하였다. 생산비 산정시 주요 고려사항은 지난 일년간의 물가변동율, 향후 몇 개월간의 경기예측, 기후변동상황, 벼의 생육상황, 경영방식변화 등이다. 각 연도별 생산비산정은 당시 농민들에게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1974년 실시당시 蓬萊穀(粗穀)1kg에 10元으로 책정되었고, 이 가격은 市價보다 약 30% 높았다.

또 정부에서 무제한 수매를 추진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호응도는 극히 좋았다. 1974년 이래 계속된 풍년과 무제한 수매정책으

로 인한 수매량 급증(1974년 187천^M/_T, 1975년 338천^M/_T, 1976년 729천^M/_T), 농지세 현물수납(1974년 187천^M/_T, 1975년 192천^M/_T, 1976년 203천^M/_T)등으로 정책실시 당초 목표로 했던 양원확보와 미가안정의 목표는 3년만에 무난히 달성했다. 그러나 수매기금의 부족과 창고용량부족이라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77년부터 무제한 수매정책을 포기하고 계획수매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즉 수매가격은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하였으나 수매량은 1단보당 970kg으로 한도를 정하여 수매하였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농민들의 소득보상차원을 무시할 수 없었던 관계로 농민조직인 農會를 통해 단보당 970kg이외 생산량의 약20%에 해당하는 양을 매년 별도의 경로를 통하여 수매하였다. 農會를 통한 수매는 정부의 계획수매에 의한 수매보다 낮은 가격이었으나 매년 생산 상황 및 시중미가 상황을 고려하여 시가보다 높은 1kg당 시가에 0.6~1元을 더한

가격으로 결정하였다. 이 결과 1974년 이래 총생산량중 총수매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1974년 12.06%, 1977년 25.27%, 1981년 35.73%로 급증했다.

1977년부터 제한수매정책이 실시되었다고는 하나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가 수매하는 총량은 대략 30%를 상회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재정운용상의 어려움과 창고용량의 한계를 제외하더라도 농민들의 생산의욕 제고로 인한 적극적 농업생산활동으로 1977년부터는 이미 과잉생산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한편으로는 경제발전과 소득증대로 인한 식료품 소비형태의 변화로 미곡 소비량은 매년 급속한 감소를 가져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량의 지속적 증대가 실현되니 1980년대초부터는 미곡공급과잉현상의 정도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공급과잉현상이 장기적 추세를 보임에 정부에서는 농업구조조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전환에 착수하였다.

표7 米穀收買狀況

區 分	收買時期	收買主體	收買價格	收 買 量
無 制 限 收 買	1974-1976	政 府	生産費 + 20% 利潤	無 制 限
計 劃 收 買	1977-현재	政 府	生産費 + 20% 利潤	每ha當 970kg
農會輔導收買	1978-현재	農 會	市價 + (0.6元 ~ 1元)	每ha當 약2000kg

표8 年度別 收買價와 收買比率

區 分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政府收買價	10.0	11.5	11.5	11.5	11.5	12.5	14.5	17.6	18.8	18.8	18.8	18.8
農會收買價	-	-	-	-	8.9	10.9	13.5	15.5	15.8	15.8	15.8	15.8
收 買 比 率	12	17	27	26	21	25	27	36	30	39	28	33

註：收買價는 蓬萊穀 第1期 kg當 粗穀 기준임

資料：「臺灣糧食統計要覽」各年度版, 臺灣省政府糧食局

표9 1人當 年間 食品消費量

연 도	1965	1970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쌀	132.9	134.5	130.4	125.9	107.0	99.4	90.3	86.0
肉 類	19.2	25.3	27.0	35.3	40.3	40.1	44.2	54.3

資料：「糧食平衡表」各年度版，臺灣省政府糧食局

VII. 生産過剩 및 構造調整時期 (1983년-1991년)

미곡의 과잉생산, 대두와 옥수수 등 사료 작물의 대량수입, 정부재정부담의 과중, 재고미의 보관창고용량부족, 국제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와 소농경업체제의 한계성인식 등 복잡다기하게 얽힌 농업문제는 1980년에 접어들면서 최대의 난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우선 1983년에는 1947년 이래 47년간 지속되어온 구역별 양곡관리 및 생산증대 정책인 「糧區」제도를 폐지하였다. 또 경영규모 확대의 일환으로 실제 경작농민들에게 농지구입자금을 대부해 주는 「擴大家庭農場經營規模協助農民購買耕地貸款辦法」제도를 도입 실시함으로써 실질적 경영규모 확대정책을 시도하였다. 일반농민의 경우 '自耕能力證明書'를 첨부하면 년리8%의 저리 농지구입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었고, 농업학교를 졸업했거나 농업시험기관 또는 농업관련기구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年利6%로 상한액 천만원(韓貨 약2억7000만원)의 대부가 가능했다.

그러나 1984년에 미국과 체결된 「中·美米食外銷協議」로 잉여미곡의 수출이 거의

봉쇄당하였다. 이는 해외수출 또는 원조로써 국내의 공급과잉을 해결하려던 종래의 정책수단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유일한 공급과잉 해소방안이 국내의 생산감소정책 뿐임을 인식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는 1984년부터 실시된 「米穀生産及稻田轉作6年計劃」으로 나타났다. 이 「轉作6年計劃」은 종래 수도작 경작지에 벼이외의 기타 작물, 특히 사료작물을 경작케함으로써 수도작 과잉생산 부담을 감소하는 한편 사료작물의 수입대체효과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술한 「轉作計劃」은 종합적, 계획적인 미곡 감산정책이다. 앞에서 살펴본 과거 일백여년간의 대만양정작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천년에 걸친 양정사의 일관된 중점사항은 식량공급 부족 해결을 위한 증산정책이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상기한 「전작계획」은 엄철론¹ 이래 2000여년 양정사에서 가장 획기적이며 주목할 만한 정책 조치이고 또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농업문제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아래에서 「전작계획」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 내용을 상술해 보고자

¹ 中國經濟思想史의 측면에서의 分類에 의하면 「鹽鐵論」을 分岐點으로 하여 「創造」와 「實證」의 2기로 나눈다. 「創造」期는 漢武帝까지의 思想史的 創造期를 이룸이며, 「實證」期는 漢武帝 이후 現代에 이르기까지 經濟政策이 實際的 政策措置에 焦點을 맞추고 있는 기간을 이룸이다.

한다.

1. 時代的 背景

가. 生産面

① 대만지역의 자연적조건이 수도작 생산에 적합할 뿐만아니라 각종 생산장려조치에 힘입어 품종개량, 생산기술혁신 등이 지속되었고 그 결과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급증하여 과잉공급의 주인이 되었다.

② 1960년대 및 197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이농촉진, 농가의 겸업농 및 부업농을 증가시켰다. 이는 농촌노동력의 절대적 부족과 노령화를 초래했고 농작업의 기계화를 불가피하게 했다. 여러가지 생산여건상 과수, 채소, 여타작물 등에 비해 수도작의 기계화가 용이하여 농민들의 수도작생산이 선호되었다.

③ 1973년 제정된 「農業發展條例」의 규정에 의거 위탁경영, 공동경영, 대리경작제도 등이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부재지주, 혹은 재촌 겸업 및 부업농들의 위탁경영 혹은 대리경작 행위가 보편화 되었다. 이때 대부분 위탁 및 수탁농가 쌍방은 기계화가 용이하고 대규모 집단경영이 가능한 수도작 경영을 선호하였다.

④ 시중미가보다 높고 생산비가 충분히 보장되는 정부의 미곡수매체제가 여타작물 생산에 비해 적정미율이 보장되었으므로 농민들의 위험기피성향과 결부되어 미곡생산에 주력하게 했다.

나. 消費面

경제발전과 국민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국

민들의 식품소비형태를 변모시켰다. 종래 미식위주 곡물의 직접 소비량은 감소하고 육류, 우유 등 고단백식품의 소비량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연간 1% 이내의 인구증가율을 감안하더라도 1967년 1인당 소비량이 141kg이었던 것이 1983년엔 90.3kg로 감소하여 약 40%의 감소폭을 보여 전체 미곡소비량의 감소는 현저했다.

다. 社會, 制度的 側面

① 사회적, 제도적 여건상 대부분 농민들은 비교적 보수적 성향이 강하고 이런 성향은 새롭고 획기적인 작부체계의 변경보다는 위험부담이 적은 종래의 벼농사를 지속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② 미곡은 오랜 기간동안 主穀의 위치를 차지하여 왔기 때문에 미곡생산의 과부족은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안정과 직결된다는 의식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다. 특히 미곡이외 기타곡물의 자급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주식인 미곡만은 충분한 자체공급이 있어야 한다는 식량안보론과 결부되어 있다.

③ 대만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왔다. 직선에 의해 선출된 각 지역 의원 및 각행정단위 首長들은 농민 혹은 농업관련 산업들이 주종을 이루는 지역 사회에서 농민의 권익보장을 위한 전통적인 미곡생산장려조치 혹은 가격안정정책을 포기할 수 없도록 했다.

④ 왕조시대부터 지속되어 온 미곡의 보관, 운송 및 분배제도 등이 비교적 완전한 미곡관리제도로 정착되어 왔기 때문에 미곡 생산농가들이 여타농산물 생산농가들에 비

해 유통, 분배 등에 대해 안정감을 갖고 있다.

라. 政府財政負擔의 側面

1973년 본격적으로 실시된 수매정책으로 매년 총생산량의 30%정도 (1983년엔 최고 39%, 1102천^M/τ)가 정부 및 農會에 의해 수매되면서 당초 예산에서 편성된 수매기금 운용에 막대한 적자를 발생시켰다. 대만의 미곡수매체제는 일단 수매한 미곡은 官, 軍 및 그 眷屬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보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982년 「停徵公教人員及眷屬食米配給」으로 일반공무원들에 대한 정부보유미 공급이 중단되면서 대량의 정부재고미가 누적되어 갔다. 이들 재고미의 시장유입은 시중미가의 폭락을 초래할 것이므로 정부에서는 미가폭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재고미를 사료용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매각시 가격은 사료업자들이 국제농산물시장에서 미곡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는 국내 수매가의 약 1/3에 불과했다. 이를 종합하면 미곡수매시 수매기금, 재고미 발생과 보관 등에 소요되는 경비, 재고미의 사료용 전환시 발생하는 결손등이 모두 미곡과잉생산 및 수매로 인한 정부재정부담으로 귀결지어졌다.

마. 農產物 貿易의 側面

한편에선 미곡과잉생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다른 한편에선 대두, 옥수수 등 사료작물의 절대부족과 대량수입이라는 농업생산구조의 모순이 지속되고 있었다. 「農產貿易統計要覽」에 따르면 197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산물무역은 흑자를 유지하여 경제

발전에 필요한 외화획득에도 공헌하였으나 1970년부터는 전체농산물무역이 적자로 전환하면서 적자폭도 점점 커지는 추세에 있다. 1970년에 6.6천 \$ 적자가 1981년엔 15억 \$ 적자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이는 일부농산물의 과잉생산에도 불구하고 전체식량자급도의 급속한 하락을 초래했다. 또 전체국가경제의 외환사정은 어렵지 않다고 하나 농업내부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수지불균형은 농업구조조정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目的과 基本原則

가. 목적

- ① 단기적으로 미곡과잉생산에서 파생되는 각종 재정부담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
- ② 장기적으로 국내외 식량수급사정에 적절히 부합할 수 있는 국내생산체제 및 농업구조를 개선시킨다.

나. 기본원칙

- ① 각 鄉鎮 행정단위는 해당년도의 수도작 생산면적을 책정하여 엄격히 집행하고 새로운 수도작 경작면적의 확대를 방지한다.
- ② 수도작의 轉作誘引정책을 강화한다. 동시에 대체작물 생산기술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여 한편으로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제고하고 다른한편으로 생산비 절감방법을 모색하여 농민의 수익을 확보한다.
- ③ 轉作對象作物은 국내외 시장확보가 쉬운 작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도한다.
- ④ 전작은 수도작을 기타 작목으로 전용

함을 이름이며 기타작목에는 사탕수수, 수도작과 관계된 冬節期 裏作과 무관한 작물이어야 한다.

⑤ 생산성이 낮은 논이 전작의 우선적 대상이 되며 가급적이면 전작지역을 집중시킨다. 배수불량, 염분함유량이 높은 답작지역, 계절풍으로 인한 유해지역 등은 양식어장 또는 목초파종을 장려한다.

⑥ 양원확보를 위해서 전작가능 대상에 포함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수리시설을 계속 유지하여 旱作灌溉를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수도작 생산이 가능토록 한다.

⑦ 본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부의 재정부담이 클 것이다. 따라서 미곡의 과잉생산 및 수매로 인해 발생하는 종래의 재정부담을 낮추도록 하여 전체적 재정부담 경감을 꾀한다.

3. 政策的 措置

가. 수매제도개선

① 미곡의 엄격한 계획생산실시 : 생산계획면적에 의거 미곡을 수매하며, 1983년을 기준으로 종래의 비수도작 경작지역과 일단 전작계획에 참여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체의 수매금지.

② 수매가격동결 : 정부가 수매주체인 경우 1kg에 18.8元, 農會가 수매주체인 경우는 1kg에 15.8元

③ 밭, 하천, 輪作지역의 수도작에 대한 수매금지와 이들 지역에 대한 사료작물 파종장려.

나. 전작과 실물보조

① 실물보조

(i) 1983년의 수도작지역이 1984년부터 수도작을 포기하고 전작하기로 신고하면 이때부터 전작대상에 포함된다.

(ii) 전작이 확정되면 대체작물로서 옥수수, 수수를 파종할 경우 1ha당 미곡(粗穀)1^M/T, 원예작물, 잡곡, 양식업 등으로 전환할 경우 1ha당 1.5^M/T의 실물보조

(iii) 일단 전작이 확정되어 실물보조를 받으면 특별한 허가가 없는한 다시 수도작 생산을 하더라도 수매대상에서 제외된다.

(iv) 실물보조계획은 1983~1989년까지로 하고 1989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옥수수, 수수 등 사료작물을 경작한다면 정부에서 보증가격으로 수매한다.

(v) 실물로 보조되는 미곡은 각기 미곡이 수매된 후 정부에서 換穀證을 발급한다. 기간은 3개월로 제한하고 이 기간중 환곡증을 소지한 농민이 환곡을 요구하면 정부는 반드시 미곡을 지급해야 한다.

② 잡곡, 원예작물 및 양식업의 지도

(i) 옥수수와 수수의 수매제도 실시 : 사료용 옥수수와 수수는 사료수입상들의 협조하에 수매한다. 정부와 사료수입상들이 수매기금을 마련하여 옥수수와 수수의 수매에서 발생하는 가격차를 보조한다.

(ii) 원예작물의 생산장려금 대부분을 실시한다. 과실류의 수입을 적당히 제한

하고 鮮果 및 가공수출을 장려한다.

(iii) 양식어업구역을 설정하며 양식생산 자금을 대부한다.

이상 살펴본 「전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中央, 省, 縣市 및 鄉鎮의 각 행정기관은 상호 밀접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중앙과 성단위에서는 정책추진반을 조직하며, 지역별로는 각행정단위 수장의 책임하에 적극적으로 전작정책을 지도, 추진한다.

4. 成果

상술한 기본원칙하 1984년부터 「전작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던바 1984년-1989년의 6년간 나타난 주요한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도작 식부면적감소 : 전작계획이 실시된후 매년 2만ha~6만ha 정도씩 수도작 경작지가 감소하여 「전작계획」실시 전인 1983년과 계획 마지막 년도인 1989년을 비교하면 총17만ha의 감소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총식부면적의 26.7%에 해당한다.

2) 수도작 생산량감소 : 전작계획 전후를 비교하여 보면 연평균 4.60%씩 생산량이 감소하여 1983년 총생산량 2,485천^M/_T이 1989년엔 1,865천^M/_T에 불과했다.

3) 재정부담경감 : 만약 전작계획을 실시하지 않고 종래의 정부수매정책을 지속했을 경우 정부재정부담 추정액이 6년간 약 595 억원이었던데 비해 전작계획실시후 전작계획에 소요된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 총소요 경비가 236.3억원이었다. 따라서 매년 100 餘億원(1988~89년 당시 환률에 의하면 韓貨 약 2700억원)씩의 재정부담이 경감되었으며 6년간 총538억원(韓貨 약1조원)의 경감효과를 가져왔다.

4) 전작구조 : 전작정책 추진시 정부에서 장려한 주요전작대상작물은 옥수수, 수수, 대두 등 수입사료작물과 원예작물 및 양식어장 등이다. 초기에는 수입대체작물로서 옥수수, 시장에서 가격변동이 심한 원예작물 등의 식부면적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1987년 이후에는 대체작물의 식부면적 증가에 비해 휴경면적이 크게 증가했다. 1987년엔 휴경면적이 65천ha에 이르러 전체 전작면적의 약 40%를 차지하게 되었다.

VIII. 맺 음 말

자연적 조건과 인문사회적 여건에 의해 미곡은 중국인들의 주식이 되었고 따라서

표10 政府保有在庫狀況

區 分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生 產 量 (千 ^M / _T)	2354	2375	2483	2485	2244	2174	1974	1900	1845
政府保有在庫量(千 ^M / _T)	876	1288	1403	1554	1438	1526	1375	1126	925
生産量中在庫比率(%)	37	54	57	63	64	70	70	59	50

資料 : 高在模 「臺灣稻米市場庫存與價格之研究」

표11 轉作面積 및 構造

단 위 : ha							
區 分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합 계
合 計	65227 (100)	96994 (100)	118885 (100)	140505 (100)	156077 (100)	161982 (100)	739670 (100)
옥수수및 수수	10153 (16)	16106 (17)	21016 (18)	23870 (17)	26525 (17)	19247 (12)	116917 (16)
園 藝 作 物	23843 (37)	24188 (25)	21121 (18)	22211 (16)	24799 (16)	28344 (18)	144506 (20)
其 他 作 物	25490 (40)	40828 (42)	52109 (44)	59005 (42)	52327 (34)	49701 (31)	279460 (38)
休 耕	5741 (9)	15872 (16)	24639 (21)	35419 (25)	52426 (34)	64690 (40)	198787 (27)

資料 : 「稻米生産及稻田轉作六年計劃成果報告」臺灣省政府農林廳

鹽鐵論 이래 약2000여년간 경제정책은 곧 양정이라는 관계가 성립했다. 이는 중국의 근·현대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본문은 일제가 대만을 통치하기 시작한 1895년 이래 약 백여년간에 걸친 대만의 양정을 주요한 배경과 입법 및 정책의 측면에서 여섯기간으로 나누어 간단히 고찰해 보았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稻米生産及稻田轉作6年計劃」을 통한 전면적 구조조정 정책으로 대만양정사에 하나의 분수령을 형성한다. 즉 일백여년 대만양정사를 포함하여 누천년에 걸친 중국양정의 중점사항은 공급부족 해결을 위한 일관된 증산정책과 「穀賤傷農 穀貴傷民」으로 대표되는 미가안정정책이었다. 그러나 1983년 입안되고 1984년부터 추진된 전작정책은 종합적, 계획적 감산정책으로 종래의 양정목표와 배치된다.

전작정책 실시 당시의 구체적 배경, 즉 정부의 재정부담과중, 농산물시장 개방화, 사료곡물의 대량수입, 급속한 경제발전과 식품소비형태의 변화로 인한 미곡소비감소와 생산과잉 등 대부분의 외재적 요인은 오늘날의 우리나라 농정여건과 매우 유사하다. 대만의 전작정책이 재정부담경감, 미곡의 식부면적 및 생산량감소와 적정재고수준 유지, 사료작물의 식부면적 확대 등 구체적 성과를 견우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들 선행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앞으로 우리나라 농정여건개선 및 농업구조조정정책에 참고로 할 수 있다면 정책수행과정에서 시행착오의 누를 감할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李坤木, “臺灣地區糧食產銷政策回顧及調整因應

- 對策，”臺灣銀行季刊，中華民國 76年 3月，
p.168-p.200
- 侯家駒，「中國經濟思想史」中華文化復興運動推
進委員會主編，中央文物供應社發行，中
華民國 71년 7月
- 高在模，「臺灣稻米市場庫存與價格之研究」國立
中興大學農業經濟研究所，中華民國 79
年 11月
- 華松年，「臺灣糧政史」上册，下册，臺灣商務印
書館發行，中華民國 73年 7月
- 黃登忠，「四十年來之臺灣糧政」 中華民國76年
元月
- 彭作奎，「稻田轉作計劃經濟效益之研究」國立中
興大學農業經濟研究所 中華民國 77年
6月
- 謝森中，李登輝 合著 「臺灣農業發展的經濟分
析」中國農村復興聯合委員會特刊 第28
號，中華民國 48年 7月
- 臺灣省政府農林廳 編，「稻米生產及稻田轉作六
年計劃成果報告」，中華民國 79年12月

〈참고자료〉

區分	植付面積 (ha)	生産量 (^M / _T)	段數 (kg/ha)	政府收買量 (^M / _T)	政府保有在 庫量(^M / _T)	換率 * (臺灣元/韓圓)
1946	564016	894201	1585	—	—	—
1947	677557	999012	1474	—	—	—
1948	717744	1068421	1489	—	—	—
1949	747675	1214523	1624	—	—	—
1950	770262	1421486	1845	—	—	—
1951	789075	1484792	1882	—	—	—
1952	785729	1570115	1998	—	—	—
1953	778384	1641557	2109	—	—	—
1954	776660	1695107	2183	—	—	—
1955	750739	1614953	2151	158171	425400	—
1956	783629	1789829	2284	169696	379400	—
1957	783267	1839009	2348	177728	397700	—
1958	778189	1894127	2434	175000	322000	—
1959	776050	1856316	2392	155146	199703	—
1960	766409	1912018	2495	159163	140058	—
1961	782510	2016276	2577	171202	296021	—
1962	794228	2112875	2660	194022	435815	—
1963	749220	2109037	2815	177482	393047	—
1964	764935	2246639	2937	201404	496836	—
1965	772918	2348041	3038	211246	401153	—
1966	788635	2379661	3017	194486	326776	—
1967	787097	2413790	3067	250467	332571	—
1968	789906	2518103	3188	273614	413716	—
1969	786592	2321633	2952	203392	533847	—
1970	776139	2462643	3173	246260	528583	—
1971	753451	2313802	3071	240211	466178	9.330
1972	741570	2440329	3291	242301	412432	9.965
1973	724164	2254730	3114	220456	288668	10.389
1974	777849	2452417	3153	509888	400257	12.737
1975	790248	2497183	3156	666226	598667	12.737
1976	787516	2712894	3450	1075857	974552	12.737
1977	779487	2648870	3406	909845	1065605	12.737
1978	752851	2444490	3249	689817	1092463	13.062
1979	722171	2449817	3400	797761	874352	13.427
1980	638445	2353590	3692	835748	876183	18.323
1981	667082	2375096	3560	1108900	1288024	19.010
1982	659379	2482602	3765	981612	1403187	19.139
1983	645479	2485197	3850	1254417	1554133	19.855
1984	586692	2244175	3825	818933	1438200	20.896
1985	563678	2173536	3856	950163	1525950	22.314
1986	531651	1973823	3713	823508	1375224	22.765
1987	501492	1900475	3790	800813	1125908	27.050
1988	471065	1844785	3916	606526	925223	27.713
1989	475454	1864590	3922	—	—	25.736
1990	454266	1806596	3977	—	—	26.639

* 「主要海外經濟指標」에서 換算

資料：「臺灣糧食統計要覽」各年度版，臺灣省政府食糧局

「臺灣農業年報」各年度版，臺灣省政府農林廳